서울경제

2014년 02월 17일 월요일 A15면 산업

군 기술인력 200명 우수중기에 취업한다

중기청-국방부 잡페어 출정식

중소기업청과 국방부는 18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'기술특전사(군 기술인력) 중소기업 잡-페어·취업 출정식'을 갖는다고 16일 밝혔다.

중기청과 국방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군 기술인력 200명을 중소기업에 취업시켜 기업 현장의 기술인력 부족현상 해소와 경쟁력 강화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계획이다. 채용대상은 군 특성화고 출신으로 올해 2~3월 전역예정인 단기복무 기술부사관(3년 복무)이다.

국방부에서 선발한 부사관 중 취업 희망자는 중소기업청에서 마련한 취업교육·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해 채용희망 우수 중소기업과 사전 매칭과정을 거쳤다.

/윤경환기자 ykh22@sed.co.kr

머니투데이

2014년 02월 17일 월요일 014면 산업

軍 기술인력 제대후 中企 취업길 열린다

내일 신라호텔서 잡페어

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군 제대인력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길이 확대된다. 중소기업청과 국방부는 18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'기술특전사(군 기술인력) 중소기업 잡-페어·취업 출정식'을 연다고 16일 밝혔다.

이날 이노비즈기업 150곳의 인사담당자들이 전역 예정인 단기복무 기술부사관을 대상으로 현장면접을 통해 최종 취업 여부를 결정한다.

중기청·국방부는 이번 출정식을 계기로 군 기술인력 200명에게 중소기업 취업을 알선, 기업현장의 기술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.

군 기술인력 채용대상은 군 특성화고 출신으로 올해 2~3월 전역 예정인 단기복무 기술부사관(3년 복무)들이다. 채용기업은 R&D(연구·개발)를 기반으로 하는 이노비즈기업(기술혁신형 기업)이다. 중기청 관계자는 "군 기술인력의 중소기업 취업 지원 대상과 교육과정을 점차 확대할 예정"이라고 말했다.

송정훈 기자 repor@

한국경제

2014년 02월 17일 월
A20면 산업

기술특전사·中企 잡페어

오는 18일 신라호텔

기술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을 위해 기술력을 보유한 군 제대 인력을 연결해 주는 '기술특전사 중소기업 잡 페어·취업 출정식'이 18일 오후 2시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열린다. 중소기업청과 국방부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올 2~3월 전역하는 군 특성화고 출신 단기복무 부사관 200명과 기술혁신형(이노비즈) 기업 150곳의 인사담당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.